

한국광기술원

적외선 광학산업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및 기술교류 연구회 발족식 개최

한국광기술원이 지난 8월 30일 '적외선 광학산업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및 기술교류 연구회 발족식'을 개최했다. 이날 행사에는 광학산업 관련 20여 개 기업과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, 한국광학회, 한국광학산업진흥회, 방위사업청, 국방과학연구소, 한국세라믹기술원, 한국표준과학연구원, KAIST, 부경대학교 등의 학·연·관에 서 50여 명이 참석했다.

한국광기술원 본부동 2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광기술원,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, 한국광학회, 한국광산업진흥회의 다자간 MOU 체결을 비롯해 △한국광기술원 김혜정 박사의 '적외선 광학 렌즈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 소개' △(주)토펜스 김현규 대표이사의 '적외선 영상장비의 현재와 미래' △KAIST 이희철 교수의 '적외선 센터의 개발현황' △(주)프리스전옵틱스 한상현 대표이사의 '적외선 광학계 개요 및 비구면 광학부품 제조기술' 등 다양한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. 또한 31일에는 한국광기술원 시설 및 장비 투어, 기업체 시설 및 장비 투어 등의 행사가 함께 열렸다.

이에 한국광기술원 김선호 원장은 "적외선 광학산업 기술교류 연구회는 국내 적외선 광학산업의 활성화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교류를 목적으로 발족됐다. 이 발족식을 시작으로 매년 2회의 기술교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.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한다."며 "이 연구회가 적외선 광학산업의 산·학·연



▶ 왼쪽부터 한국광학회 황보창권 회장, 한국광기술원 김선호 원장,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박춘봉 회장, 한국광산업진흥회 조규중 부회장

협력을 극대화하고 산업화를 촉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."고 말했다.

이어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박춘봉 회장은 "광학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매우 기쁘다. 이 행사가 광학산업 활성화를 위해 모두 이마를 맞대고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."고 말했다.